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깨달은 사람에 대하여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는다. 드러내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는다.

비어 있으나 가득하고 가득하나 비어 있다. 지음이 없으나 작용(作用)이 있고 작용이 있으나 머묾이 없다. 보고 듣고 오고 가는 것이 오고 가고 보고 듣는 것일 뿐 더함도 덜함도 없다. 하나를 보여도 열을 보이는 것이요 열을 보여도 하나를 감추지 않는다. 빛과 어둠이 둘이 아닌 하나이나 그 하나에도 머물지 않는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 숨어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 있다. 물처럼 공기처럼 내곁에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분주하게 헤맬 뿐 마음을 크게 열지 않는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길 바라면서도 진정한 자유인이 되길 바라면서도 집착이라는 병(病), 습관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

날마다 좋은 날의 진정한 자유인은 졸리면 잠을 자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자연 그대로의 사람다운 사람이다. 부처는 신(神)이 아닌 참사람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열린 마음이면 이르는 곳마다 정토(淨土)이다.

이글은 몇 년 전에 펴낸 선문답(禪問答)의 여는 글이다.

흔히들 깨달은 사람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아 답변으로 옮겨온 글이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 부처는 참사람의 완성을 의미한다.

하여, 진리와 한 몸을 이룬 깨달은 사람은 생각의 윤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오고 가고 있고 없고 높고 낮음 등에 차별을 두거나 끄달리지 않는다.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롭다. 꾸밈이 없고 조작하지 않으며 순수와 진솔함으로 자연스런 삶의 주인공이 된다.

지나간 어제에 집착하거나 미련두지 않고 다가올 내일을 기대하거나 쌓아둠으로 맞지 않는다. 어제도 내일도 없는 오로지 오늘의 주인공으로 넘치거나 부족함 없이 평화와 행복, 자유인으로 얽매임 없이 살아간다.

모으거나 쌓아둠 없이 비우고 버리며 나누는 기쁨으로 발길 닿는 곳이 정토이다. 변두리도 없다. 모서리도 없다. 임제선사의 수처작주(隨處作主)처럼 내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요 만나는 사람이 모두 부처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커다란 교과서요 만나는 사람은 좋은 스승이다. 선지식이란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요 착한 벗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빛과 어둠이 둘이 아닌 하나이나 그 하나에도 머묾이 없는 머묾이 선지식의 삶인 까닭이다.

본래 동, 서, 남, 북은 없는 것이다.

나는 어느 곳에 서 있어도 세상의 중앙이요 이르는 곳이 극락세계의 평화와 행복, 자유 누리는 오늘의 주인공인 것이다.

관세음보살과 문수와 보현이 나뉘어 셋일 뿐 셋이 아닌 하나요 보신(報身) 화신(化身) 법신(法身)이 셋이 아닌 하나인 것이다. 하여, 하나를 보여도 열을 보이는 것이요 열을 보여도 하나를 감추지 않는 것이다.

드러낼 일도, 감출 일도 없이 목마르면 물마시고 졸리 우면 잠을 자는 자연인으로 살 일이다.

업(業)은 습관이다. 습관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모으고 쌓아두려는 속물근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는 수행자가 아닌 업덩이 중생일 따름이다.

입으로 짓는 것만이 구업(口業)이 아니다. 눈은 보는 입이요 귀는 듣는 입이다. 코는 냄새 맡는 입이요 배꼽밑의 두 개의 생식기관은 배설하는 입이다.

손짓과 발짓, 몸짓으로 뜻을 나타내는 시늉도 또 하나의 입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열린 안목으로 열린 자세로 간절심으로 마음 모아 깨달음을 이루어야 진정한 의미의 참사람,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집착과 의혹, 얽매임에서 천지개벽하듯 참사람에 이르게 되면 평화롭다. 편안하다. 행복하다. 자유인이다.

거짓으로 솔직하지 않는 꾸미는 만족은 윤회를 거듭할 뿐이다.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로운 수행의 완성은 구호나 연습으로 흉내 낼 수 없는 것이다. 누가 무엇을 물어도 망설이거나 머뭇거림 없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인, 자유인으로 살 일이다.

있는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자유롭다

순수와 진솔함으로 삶의 주인공이 된다

매서운 추위에도 얻은 고고한 깨침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선가에서 전해지는 선사들의 일화에는 고도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다. 모두가 은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원래 선은 사량분별(思量分別)로 이해하는 것을 금기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행동이나 개념을 간접적이고 암시적으로 표현하여 상대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이다.

백장회해(百丈懷海:720~814)선사는 중국 선종사에서 총림의 청규를 세운 것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마조(馬祖) 문하의 특출한 걸승으로 남전보원(南泉普願), 서당지장(西堂智藏)과 함께 삼대사(三大士)로 불리어졌던 대선사였다. 백장산에서 선원을 세우고 청규를 제정하여 대중을 이끌고 농사와 선수행 병행하여 선농일치(禪農一致)를 생활화 하였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고 그가 남긴 말은 오늘날까지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백장이 스승 마조와의 문답을 기초로 한 공안에 "백장삼일이농(百丈三日耳聾)"이 있다. 백장이 삼일 동안 귀가 먹었다는 말이다. 〈연문염송설화〉 181칙에 백장이 두 번째 마조를 뵈오니 마조가 불자(拂子)를 세웠다. 이에 백장이 물었다. "이것에 의하여 활용하오리까, 이것을 떠나서 활용하오리까?" 마조가 불자를 본래 자리에 걸어 두거늘, 선사가 백장이 양구(良久:잠시 침묵을 지키는 것)하니 마조가 물었다. "그대는 훗날 어떻게 두 입술을 놀리면서 무엇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것인가?" 백장이 불자를 세웠다. 마조가 물었다. "이것에 의하여 활용하는가, 이것을 떠나서 활용하는가?" 백장도 또한 불자를 본래 자리에 걸어 두었다. 이에 마조가 할(喝: 크게 고함을 지르는 소리)을 하니 백장이 삼일 동안 귀가 먹었다.

나중에 백장의 제자 황벽이 하루 만에 하직하고 마조를 뵈러 가겠다고 하니 백장이 말하기를 "마조는 이미 천화(遷化)하였느니라." 하였다. 황벽이 물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조께서 무슨 말씀이 계셨습니까?" 백장이 두 번째 뵈러 갔을 때의 일을 말하고 "내가 그때 마조에게 한 차례의 할을 받고 사흘 동안 귀가 먹었다"고 하였다. 황벽이 이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혀를 빼거늘 백장이 또 물었다. "그대는 후일에 마조의 대를 잇지 않겠는가?" 하자 황벽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스님을 통해 마조대사의 큰 기틀의 작용을 보았을 뿐이요, 마조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마조의 대를 이으면 뒷날 저의 자손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백장의 '3일 귀먹은 이야기' 와 황벽을 '혀를 뺀 이야기' 가 선가에 나돌게 되었다.

이 '이농삼일(耳聾三日)' 의 화두에 대하여 조선조의 청매인오(靑梅印悟:1548~1623) 선사가 지은 게송이 〈청매집(靑梅集)〉에 전해진다.

금강 같은 할 한 번에 단박에 못을 뽑으니 金剛一喝抽釘急

맑은 하늘에 번갯불이 번쩍 하구나 白日靑天電影忙

빗장 밖 길로 고개 돌릴 틈도 없는데 無暇轉頭關外路

가을 빛 재촉하는 기러기는 형양(衡陽) 지나가네. 雁拖秋色過衡陽

형양(衡陽)은 중국 호남성 동남부에 있는 지명이름이다. 이곳에 오악(五嶽) 가운데 하나인 남악(南嶽)이 있고 마조의 스승 회양(懷讓: 677~744) 선사가 이곳에 있었다. 백장의 사조(師祖)가 된다.

청매 인오(靑梅 印悟 1548~1623)는 서산(西山)대사 휴정(休靜)의 제자로 묘향산에서 서산대사를 모시고 있다가 선조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장으로 전쟁에 참가해 3년 동안 승군을 이끌고 왜군과 맞섰다. 전쟁 속에서 그는 처절한 참상을 느끼고 깊은 고뇌에 시달리다 다시 한 번 크게 발심하여 전남 부안 아차봉 마천대 기슭에 월명암을 짓고 일대사 해결을 위한 혹독한 정진에 들어갔다. 이때 그가 머물던 선실의 이름도 청매당(靑梅堂)이라 하였다. 매서운 추위 속에 피어나는 매화와 같이 고고한 깨침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는 또 그림에 능해 광해군 9년(1617)에 왕명으로 벽계(碧溪) · 벽송(碧松) · 부용(芙蓉) · 청허(淸虛) · 부휴(浮休) 등 5대사(五大師)의 초상을 그려 조사당(祖師堂)에 모시고 제문(祭文)을 지어 봉사하였다. 또 십무익송(十無益頌)이란 글을 지어 수행자를 경책하기도 하였다.

자비는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⑰ 깨끗한 자비심이란

施悲淨品第二十四

猶如雪山生一切藥。大悲雪山生三種施。一切功德除悲更無有法能與世間作樂。施作悲體能爲世間作種種樂。無上果報爲三施所成。悲是三施之因。眾生祖母能生如來。一切眾生無上最勝歸依誰不恭敬。能生三施是名大悲。菩薩大悲功德極多在心中住。唯有一事而不遠離無有染著。常作利益他事無有疲厭。世間出世間樂及利他樂。皆從悲生。是以我今恭敬於悲能利益世間大悲者。我亦恭敬種種功德。實如所說有二功德最勝。能利益他及自淨悲。悲能淨於施。是以我今愛敬施能莊嚴於悲。我亦愛敬悲諸有同悲音者。亦復愛敬悲能淨心體施能淨業道。能淨心體能淨業道。æ 能淨涅槃道能淨無上菩提道。悲能淨捨。無悲者垢汚於捨。施能淨悲悲能淨施。是名世間端正。悲能生信敬。猶如大地爲眾華莊嚴。大悲亦復如是。世間眾生爲煩惱日之所燒逼。得悲心者皆生掠樂。猶如夏熱之時得淸凉風皆得止息。

번역 | 시비정품 제24

설산에 일체 약이 자라듯이, 대비심의 설산에 세 가지 보시가 자랍니다. 일체의 공덕에 자비심을 제하면 능히 세상에 줄 약을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보시로 자비의 근본을 삼아 세상의 가지가지 약을 지어야 합니다. 위없는 과보는 세 가지 보시로 이룩되는바, 자비는 세 가지 보시의 인연입니다. 중생의 조상과 어머니를 능히 여래로 태어나게 하며, 일체 중생의 위없는 최고 수승한 귀의처가 되니 누가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능히 세 가지 보시를 내어야 대비심이라 이릅니다. 보살의 대비심 공덕은 극히 많지만 마음에 있습니다. 오직 한 결같이 섬기에 떠나지 않고 집착에 물듦도 없습니다. 늘 타인을 이익 되게 섬기며 피로함이 없습니다. 세간과 출세간의 즐거움으로 타인의 이익케 하는 즐거움에 이르는데, 다 자비심을 좇아 생깁니다. 이것으로써 내가 지금 자비심을 공경함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대비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역시 가지가지 공덕을 공경하나니, 실제로 설한 바 두 가지 공덕에 있는 가장 수승한 것은 능히 타인을 이익케 하여 스스로 깨끗한 자비에 이르는 것이며, 자비심으로 능히 보시에 깨끗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사랑과 공경의 보시로써 자비심을 능히 장엄합니다. 내가 역시 공경하는 자비심은 모든 자비의 음성에 동일하게 있는 것이니, 역시 다시 공경함은 자비심은 능히 마음 근본을 깨끗케 하며, 보시는 능히 업의 길을 깨끗케 하기 때문입니다. 능히 마음 근본을 깨끗케 하면 능히 업의 길을 깨끗케 하며, 곧 열반의 길을 깨끗케 하여 능히 위없는 보리의 길을 깨끗케 합니다. 자비는 능히 깨끗한 희사며 무자비한 이는 희사를 더럽힙니다. 자비가 능히 깨끗한 자비면 자비가 보시가 됩니다.

해설 |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진리는 '자비심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든다' 는 가르침이다. 사족처럼 덧붙이자면 능히 마음 근본을 깨끗케 하면, 업의 길이 깨끗해진다는 것이다. 더불어 열반의 길이 깨끗해지고 위없는 보리의 길이 깨끗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뜨거운 여름날 뙤약볕 아래 타들어 가는 꽃과 같은 존재다. 끝도 없이 표류하며 먹어도 먹어도 목마른 바닷물에 목을 축이는 존재다. 그렇게 욕망의 갈증은 또 다름 욕망의 갈증을 부른다. 뉘라서 청량한 바람과 비구름을 부를 것인가. 자비를 통해 표류하는 마음을 안정시킬 일이며, 타들어 가는 중생들 번뇌의 불을 소멸시킬 일이다.

제97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1월 중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